

보도시점 5.9.(금) 조간 < 5.8.(목) 12:00

한일 바이오 동행, 혁신과 협력의 여정이 이어진다.

- 「한일 바이오 협력 네트워크」를 개최, 한국 바이오벤처의 일본 시장 진출 및 양국 기업 간 협력 기회 확대
- 국내 유망 바이오벤처기업 9개사와 일본 주요 제약사 8개사 참여

중소벤처기업부(장관 오영주, 이하 중기부)는 8일(목) 서울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「한-일 바이오 협력 네트워크」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.

이번 행사는 지난 2월 20일 도쿄에서 개최된 '한일 바이오 에코시스템 라운드테이블'의 후속 조치로, 한국의 혁신적인 바이오벤처기업과 일본의 세계적(글로벌) 제약사 간 사업(비즈니스) 협업(파트너십) 강화와 협력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하였다.

중기부와 일본 쇼난 아이파크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산업기술진흥원(KIAT)이 주관한 이번 행사에는 혁신기술을 보유한 한국 바이오 벤처기업 9개사와 일본 제약사 8개사를 포함해 양국 바이오 산업 관계자 약 50여명이 참석하였다.

이번 행사는 한국 바이오벤처기업들의 투자설명회(IR)와 양국 기업인들 간 네트워크로 구성되었다. 투자설명회에서는 단백질 신약 설계 인공지능, 면역항암제 등 혁신 신약개발 벤처기업이 기술을 소개하며 일본 제약사와의 협력 가능성을 모색했다.

참석자들은 한일 바이오 기업 간의 분업과 협력이 신약개발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혁신을 가속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하며 앞으로도 활발한 교류와 정보 공유가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.

임정옥 창업벤처혁신실장은 "바이오헬스 산업은 21세기 핵심 성장 동력으로, 한국과 일본이 각자의 강점을 활용해 상호 보완적 협력을 추진한다면 세계(글로벌) 시장에서 더 큰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"이라고 강조했다. 또한 "한국의 혁신적인 세계(바이오) 기술과 일본의 풍부한 산업 경험이 만나 연계효과(시너지)를 창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"고 밝혔다.

한편, 중기부는 바이오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조직내 '바이오 전담팀'을 구성하여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, 이번 행사를 시작으로 한국과 일본의 바이오 기업 간 교류와 협력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.

담당 부서	특구혁신기획단 특구정책과	책임자	과 장	우경필 (044-204-7190)
		담당자	사무관	서호경 (044-204-7221)
			사무관	안예리 (044-204-7195)

